

철학 입문

개요:

본 수업은 Shelly Kagan 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교재로 하여, 죽음과 삶의 의미에 관한 철학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철학입문 과목입니다. 수업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인간 존재의 본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논의로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보는 이원론과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보는 물리주의를 대조하고, 영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육체 없이 정신만 존재할 수 있는지, 영혼이 불멸하는지 등의 문제를 데카르트, 플라톤 등의 논변을 통해 검토합니다. 둘째,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논의로서, 내가 왜 나인지를 묻는 정체성 문제를 영혼 관점, 육체 관점, 인격 관점에서 각각 분석하고, 복제 문제와 분열 문제 등의 사고실험을 통해 각 입장의 한계를 탐색합니다. 셋째, 죽음의 본성과 가치에 관한 논의로서,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규정한 후, 죽음이 나쁜 것인지를 박탈 이론, 에피쿠로스의 입장, 루크레티우스의 대칭 논변 등을 통해 검토하며, 영원한 삶이 과연 바람직한지,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경험 기계 사고실험과 그릇 이론 등을 통해 탐구합니다. 넷째, 죽음을 마주한 삶의 태도에 관한 실천적 논의로서, 죽음의 필연성·가변성·예측불가능성·편재성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죽음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무엇인지,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살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수강생들은 죽음이라는 보편적 현상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기본적 방법과 주요 논변들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목표:

본 수업은 철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죽음'이라는 누구에게나 친숙하면서도 근본적인 주제를 통해 철학이란 무엇이며 철학적 탐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영혼의 존재 여부, 인격의 동일성, 삶의 가치, 도덕적 판단 등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 윤리학의 핵심 물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과정에서 철학의 주요 분야들을 폭넓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들은 일상적 직관을 논변의 형태로 정식화하는 법,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분석하는 법, 사고실험을 통해 입장의 함축을 시험하는 법, 그리고 반론을 구성하고 이에 응답하는 법 등 철학적 탐구의 기본적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Kagan 의 텍스트는 이러한 철학적 방법들을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서, 수강생들은 저자의 논증을 따라가면서 철학적 사고의 진행 방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본 수업은 수강생들이 죽음과 삶에 관한 철학적 물음들에 대해 단순한 감상이나 막연한 직관에 머무르지 않고 논리적으로 엄밀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철학과에서의 심화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 역량을 마련하게 됩니다.

면담: 월요일/금요일 15 시 00 분부터 16 시 00 분까지 입니다. 5 남 223 호로 방문해 주세요. 면담을 원하시는 학생은 다음의 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bronzeyong@inha.ac.kr

지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직접 말씀하시거나 위 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진행:

수업 전 해당 주의 할당 교재를 반드시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읽기 과제를 진행할 때에는 I-Class 에 게시되는 reading questions 를 참고하여, 각 질문에 스스로 답을 시도해 보면서 읽기를 권장합니다. 텍스트의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1) 저자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2)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3) 이해되지 않거나 의문이 드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표시하며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낯선 개념이나 사고실험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메모를 해 오면 수업 중 토론에 도움이 됩니다.

수업 중 수업에서는 해당 주치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 중에는 주요 개념과 논증 구조를 함께 정리하고, 조별 활동을 통해 핵심 논증을 직접 재구성해 봅니다. 이어서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조별 토론을 진행한 후 전체 토론으로 확장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비교·검토합니다. 토론에서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각 입장이 어떤 전제에 의존하며 어떤 반론에 직면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수업 마지막에는 간단한 퀴즈의 정답을 함께 확인하며 해당 주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주 읽기에서 주의 깊게 볼 점을 안내합니다.

성적:

◦ 여러분의 최종 점수는 아래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를 비율에 따라 합산한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업	비율	
중간	45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주시거나 결석 후 10 일 이내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감점하지 않습니다. 지각은 2 회를 결석 1 회로 환산하며, 출석 감점은 환산된 결석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산 결석이 1 회에 해당하는 범위까지는 감점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감점이 적용됩니다. 감점은 환산 결석 1 회당 전체 성적에서 1 점(지각 1 회당 0.5 점)이며, 예를 들어 결석 1 회와 지각 1 회가 있는 경우 환산 결석은 1.5 회이므로 초과분 0.5 회에 대해 0.5 점이 감점되고, 결석 1 회와 지각 2 회가 있는 경우 환산 결석은 2 회이므로 초과분 1 회에 대해 1 점이 감점됩니다. 단, 총 결석 횟수가 7 회 이상일 경우 본 과목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기말	45	
출석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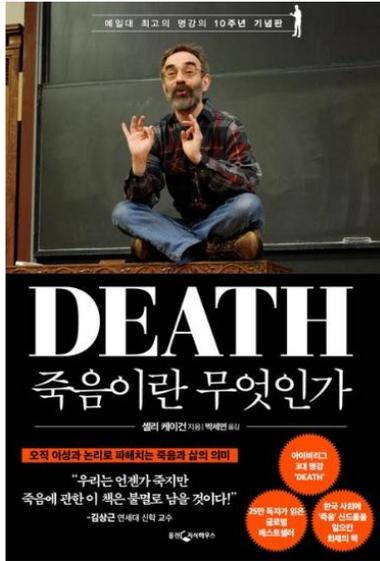
◦ 본 교과는 상대 평가입니다. 최종 점수를 토대로 아래의 백분위에 따라 최종 학점을 결정합니다.

등급	비율	
A+	20%	 위 비율은 개별 점수 구간에 기계적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적 분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점수가 일반적인 점수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분포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최종 학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A 등급과 B 등급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평가 기준이 학교 학칙 또는 관련 규정과 상충하는
A0	20%	
B+	25%	
B0	25%	
C+ 이하	10%	

경우에는 학교 학칙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교재:

Shelly Kagan, 『죽음이란 무엇인가(Death: 10th Anniversary Edition)』



이 책은 예일대학교 철학과에서 진행된 공개 강의를 바탕으로 집필된 철학 입문서로,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철학의 핵심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소개한다. 인간의 본성, 인격 동일성, 죽음이 나쁜 것인지에 대한 논쟁, 삶의 의미와 같은 주제를 사고실험과 논증을 통해 다루며, 학생들이 철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동시에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본적인 철학적 사고 방식을 익히도록 돕는 교재이다.

일정:

3 월 3 일	개강
4 월 21 일	중간고사
5 월 5 일	어린이날로 휴강
6 월 9 일	기말고사(종강)

1 주차: 3 월 3 일

- 다음 링크의 내용을 토대로 철학 분야에 대해 소개합니다.
<https://www.apaonline.org/page/undergraduates>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삶이 끝난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가’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p>1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왜 먼저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는가?</p>	<p>6 물리주의에 따르면 ‘마음(mind)’은 무엇인가? 그것은 몸과 어떤 관계인가?</p>
---	--

2	‘죽음 이후의 삶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단순한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다는 반론은 무엇이며, 저자는 그것을 어떻게 피하려 하는가?	7	물리주의에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몸의 죽음’과 ‘나의 소멸’은 반드시 같은 사건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8	“사람은 단순히 몸일 뿐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4	이원론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두 요소는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9	만약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라도 몸이 살아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5	이원론이 죽음 이후 생존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10	당신은 현재 어느 쪽 입장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주차: 3 월 10 일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영혼은 존재하는가’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1	저자는 왜 ‘사후 생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가?	6	인간의 사고·계획·추론 능력은 영혼의 존재를 요구하는가, 아니면 물리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저자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명하라.
2	이원론과 물리주의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며, 두 입장이 실제로 대립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7	컴퓨터나 로봇에게 ‘믿음’이나 ‘욕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영혼 존재 문제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3	영혼의 존재를 감각이나 내적 관찰로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영혼 존재 주장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8	감정의 ‘행동적 측면’과 ‘경험적(느낌) 측면’은 어떻게 구분되며, 이 구분은 이원론에 어떤 논거를 제공하는가?

4 저자가 말하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이란 무엇이며, 영혼 존재 논증에서 이 방법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9 의식적 경험(예: 색을 보는 느낌, 고통의 느낌)이 물리주의에 제기하는 철학적 어려움은 무엇인가?
5 살아 있는 몸과 시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영혼을 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제시되며, 물리주의자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10 자유의지를 근거로 영혼의 존재를 주장하는 논증은 어떤 전제들로 구성되며, 저자는 이 논증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주차: 3 월 17 일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육체 없이 정신만 존재할 수 있는가’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1 데카르트의 논증은 어떤 종류의 논증이며, 경험적 관찰이 아니라 무엇에 의존하는 논증인가?	6 저자가 제시하는 ‘저녁별과 새벽별(금성)’ 사례는 데카르트 논증의 어떤 점을 문제 삼기 위해 도입되는가?
2 저자가 제시하는 ‘몸이 존재하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도입되는가?	7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논리적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론은 무엇을 겨냥하는가?
3 ‘상상 가능성(imaginability)’과 ‘논리적 가능성(logical possibility)’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데카르트는 가정하는가?	8 동일성(identity)이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우연적 동일성)은 데카르트 논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내가 몸 없이 존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마음과 몸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9 데카르트식 논증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어떤 전제(상상 가능성 → 가능성 → 구별성)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 | |
|---|--|
| 5 ‘펜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는 사례는 데카르트의 주장에 어떤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는가? | 10 저자가 최종적으로 영혼 존재 논증들에 대해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4 주차: 3 월 24 일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가’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 | | |
|---|--|
| 1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은 무엇이며, 육체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단순히 “비물질”이라는 말만으로 충분한가? | 6 이 논증에서 가장 취약해 보이는 전제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 2 플라톤은 왜 철학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그 주장은 그의 형이상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7 단순성 논증(Argument from Simplicity)은 어떤 일반 원리에서 출발하는가? (“파괴되는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는 주장에 주목) |
| 3 ‘이데아(Forms)’란 무엇인가? 플라톤은 왜 감각적 사물과 구별되는 별도의 영역을 상정하는가? | 8 하모니(lyre 의 조화) 반례는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이것은 영혼-육체 관계에 대해 어떤 다른 이론을 제시하는가? |
| 4 “같은 것은 같은 것에 의해 인식된다(Like is known by like)”라는 생각은 영혼 불멸 논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9 플라톤의 두 논증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가? 서로 다른 종류의 실패인가, 같은 종류의 실패인가? |
| 5 첫 번째 논증(Forms 논증)의 전제들과 결론을 스스로 논증 형태로 재구성해 보라. (힌트: 영혼이 비물질 → 영혼이 영원) | 10 이 장 전체를 고려할 때, 플라톤이 정말로 ‘영혼의 불멸’을 증명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가? |

5 주차: 3 월 31 일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나는 왜 내가 될 수 있는가’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 | | | | |
|---|---|----|---|
| 1 | 저자는 왜 먼저 영혼의 존재 여부를 논의한 뒤에 인격 동일성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가? | 6 | ‘공간적으로 연장된 대상’과 ‘시간적으로 연장된 대상(공간-시간 벌레, space-time worm)’의 비유는 동일성 문제 이해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
| 2 | 어떤 존재가 ‘내가 살아남았다’고 말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단순히 누군가가 살아 있기만 하면 충분한가? | 7 | 영혼 이론(soul view)에 따르면 동일한 사람임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 입장이 죽음 이후 생존 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 3 | ‘월요일의 사람’이 ‘오늘의 나’와 같은 사람인지 묻는 질문은 실제로 무엇을 묻는 질문인가? | 8 | 로크가 제기한 ‘영혼 교체’ 사례는 영혼 이론의 어떤 점을 문제 삼는가? 이 사례가 직관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 4 | 기차(caboose-locomotive) 사례는 인격 동일성 문제에서 어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가? | 9 | 신체 이론(body view)에 따르면 동일한 사람임을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 입장은 사후 생존 가능성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드는가? |
| 5 | 자동차 사례에서 ‘stage(단계)’와 ‘전체 대상(extended-through-time object)’의 구분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가? | 10 | 시계 재조립 사례와 블록 탑(반 인바겐 사례)은 ‘같은 대상이 계속 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해 어떤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가? |

6 주차: 4 월 7 일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나는 영혼인가 육체인가 인격인가’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 | | | | |
|---|--|---|--|
| 1 | 저자가 제시하는 인격 동일성의 세 이론(영혼 이론, 신체 이론, 성격/심리 이론)은 각각 무엇을 동일성의 기준으로 보는가? | 6 | 위 두 사례가 사실상 동일한 설정이라는 점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직관의 역할과 한계) |
|---|--|---|--|

2	저자는 왜 ‘평범한 경우’가 아니라 공상과학적 사례를 통해 인격 동일성 문제를 검토하려 하는가?	7	‘나폴레옹 사례’는 성격 이론에 대해 어떤 반론을 제기하려는 것인가? 그리고 저자는 왜 이 반론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보는가?
3	마음 교환(mind transfer) 사례에서 “누가 고문당하길 원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인격 동일성을 판단하는 어떤 철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8	복제(duplication) 문제는 성격 이론에 어떤 어려움을 제기하는가?
4	첫 번째 사례는 왜 성격(심리) 이론을 지지하는 직관을 유도하는가?	9	‘뇌 반구 분열(fission)’ 사례는 왜 신체 이론 또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함을 보여주는가?
5	두 번째 사례(기억 제거 후 고문)는 왜 동일한 상황임에도 신체 이론을 지지하는 직관을 만들어 내는가?	10	분열 사례에서 두 이론이 모두 채택하려는 ‘no-branching rule’은 무엇이며, 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7주차: 4월 14일

- 다음 주 화요일에 중간고사가 진행됩니다. 시험 범위는 1 주차부터 7 주차까지 수업에서 다룬 모든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Class 에 공지합니다.
- 본 시험은 교재 내용을 암기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각 장에서 제기된 철학적 문제와 그에 대한 논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특정 철학자의 결론을 외우기보다 그 결론이 어떤 전제와 추론을 통해 도출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매주 제공된 reading questions 가 사실상 시험 준비의 기준이 됩니다. 각 질문에 대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시험을 치르는 데 충분합니다.
- 철학 답안은 분량이나 표현의 화려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문제 제시, 논증의 재구성, 그리고 그 함의나 반론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만 적고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정답에 가깝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시험 문제는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의와 reading questions 에서 다룬 개념과 논증을 이해했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됩니다.
- 시험 준비는 각 장마다 (1)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2) 주요 입장과 논증 구조가 무엇인지, (3) 그 논증이 받아들여질 경우 어떤 결론이 따라오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철학 시험의 목적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에 있습니다. 한 문제를 상황하게 쓰기보다 핵심 논증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답안이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죽음의 본질에 관하여’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1	물리주의 관점에서 ‘죽음’은 무엇으로 이해되며, 살아 있음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가?	6	Kagan 은 단순히 P 기능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P 기능을 할 능력(ability)’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꿈없는 수면 사례는 이 점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2	Kagan 이 구분하는 B 기능(body functions)과 P 기능(person functions)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 구분이 죽음의 시점을 판단하는데 중요한가?	7	영구 혼수상태(coma)의 두 유형(능력은 남아 있는 경우와 능력이 파괴된 경우)을 구분할 때, 어느 경우에 사람의 죽음을 인정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정상적 경우(normal case)와 비정상적 경우(abnormal case)를 비교할 때, 죽음의 시점을 P 기능의 상실로 볼 것인지 B 기능의 상실로 볼 것인지에 대해 어떤 철학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8	장기이식 사례에서, 심장이 뛰는 몸에서 심장을 적출하는 것이 살인인지 여부는 인격 관점과 신체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가?
4	‘인격 관점(personality view)’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 죽는가? 그리고 이 입장에서 “몸은 살아 있지만 나는 죽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9	‘정지 애니메이션(suspended animation)’ 사고실험은 죽음을 기능의 정지로 정의할 것인지, 기능 수행 능력의 상실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 | | |
|---|---|
| <p>5 '신체 관점(body view)'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도 내가 어떤 의미에서 계속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주장이 직관과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p> | <p>10 Kagan 은 물리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죽음에 “특별히 신비로운 것은 없다”고 말한다. 이 결론은 앞선 논의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p> |
|---|---|

8 주차: 4 월 21 일

- 화요일 수업 중 중간고사가 진행됩니다.
- 다음 주 수업에서는 중간고사 리뷰를 진행합니다. 수업 시간에 답안을 배부하여 각 문항의 출제 의도와 핵심 내용, 이해가 필요했던 개념들을 설명한 뒤 다시 회수할 예정입니다. 시험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했는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 학기 중 강의 평가가 포털에서 진행됩니다. 수업 개선을 위해 참여 바랍니다.

9 주차: 4 월 28 일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죽음에 관한 두 가지 놀라운 주장’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 | | |
|---|--|
| <p>1 저자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죽음을 믿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두 가지 해석을 구분하는가?</p> | <p>6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사례는 사람들이 죽음을 “안다”는 것과 “정말로 믿는다”는 것 사이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가?</p> |
| <p>2 “죽음을 상상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믿을 수 없다”는 논증의 구조는 무엇이며, 저자는 그 논증의 어떤 전제를 문제 삼는가?</p> | <p>7 저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진정으로 믿지 않을 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근거를 무엇이라고 보는가?</p> |
| <p>3 저자가 ‘죽음을 안에서(from the inside)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죽음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p> | <p>8 “모든 사람은 혼자 죽는다”라는 명제에 대해 저자는 왜 여러 해석들을 차례로 검토하는가?</p> |

4 '깊은 잠(dreamless sleep)' 사례는 죽음에 관한 어떤 철학적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가?	9 '아무도 나 대신 내 죽음을 겪을 수 없다'는 해석이 왜 깊은 통찰이 아니라 단지 언어적(문법적) 사실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주장하는가?
5 프로이트(Freud)의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불멸을 믿는다"는 주장에 대해 저자는 어떤 반례적 논변으로 대응하는가?	10 저자의 최종 입장은 무엇인가?

10 주차: 5 월 5 일

어린이날로 인해 해당 주 수업은 휴강입니다. 대신 보강 영상을 I-Class 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지정된 읽기 과제를 수행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죽음은 나쁜 것인가'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1 저자가 형이상학적 논의를 마무리하며 물리주의를 받아들일 때, 죽음은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가?	6 에피쿠로스의 주장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다"는 논증은 어떤 전제(존재 요구 조건)를 포함하고 있으며, 왜 죽음이 나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가?
2 "죽음이 나쁘다"는 우리의 일반적 믿음은 어떤 철학적 문제를 즉시 발생시키는가? 특히 '죽으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7 저자가 제시하는 '가능 인물 Larry' 사례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가? 이 사례는 박탈 이론에 어떤 어려움을 제기하는가?
3 죽음의 나쁨을 단순히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으로 설명하는 견해에 대해, 우주선 두 이야기(멀리 떠나는 경우와 폭발로 사망하는 경우)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되는가?	8 저자가 구분하는 '강한 존재 요구 조건(bold)'과 '약한 존재 요구 조건(modest)'은 무엇이며, 왜 약한 존재 요구 조건이 더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는가?

<p>4 저자가 구분하는 세 가지 나쁨(내재적 나쁨, 도구적 나쁨, 비교적 나쁨)은 각각 무엇이며, 죽음은 이 중 어느 방식으로 나쁜 것이라고 설명되는가?</p>	<p>9 루크레티우스의 대칭 논변은 죽음의 나쁨에 대해 어떤 도전을 제기하는가? (출생 이전의 비존재와 사후 비존재의 비교)</p>
<p>5 ‘박탈 이론(deprivation account)’에 따르면 죽음이 나쁜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가?</p>	<p>10 출생 이전의 비존재와 사후 비존재 사이의 비대칭을 설명하려는 시도들 가운데, ‘상실(loss)’과 ‘미획득(저자가 부르는 schmoss)’의 구분은 무엇을 설명하려는 것인가?</p>

11 주차: 5 월 12 일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영원한 삶에 관하여’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p>1 박탈 이론이 참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가?</p>	<p>6 우리는 흔히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그림을 떠올리지만, 저자는 왜 그러한 상상조차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가?</p>
<p>2 저자는 박탈 이론을 받아들여도 불멸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7 버나드 윌리엄스가 불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지루함과 관련하여)</p>
<p>3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저자가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p>	<p>8 쾌락을 계속 제공하는 ‘쾌락 기계(뇌 자극 장치)’가 인간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저자의 판단은 인간의 어떤 특징에 근거하는가?</p>
<p>4 ‘초콜릿 예시’는 삶의 길이와 가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설명하려는 비유인가?</p>	<p>9 기억 상실과 성격 변화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영생을 구성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저자는 왜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생존’이 아니라고 말하는가?</p>

<p>5 스유프트의 영생자(늙고 쇠약해지지만 죽지 않는 존재) 사례는 ‘영원히 산다’는 생각에 대해 어떤 직관을 수정하도록 만드는가?</p>	<p>10 저자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즉, “영원히 사는 것”과 “지금처럼 죽는 것” 사이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p>
--	---

12 주차: 5 월 19 일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p>1 저자가 말하는 “삶의 가치(the value of life)”는 도덕적으로 좋은 삶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가?</p>	<p>6 저자가 ‘경험 기계(experience machine)’ 사고실험을 통해 쾌락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p>
<p>2 어떤 삶이 한 사람에게 잘 된 삶(well-being)인지 판단하기 위해 왜 ‘복지 이론(a theory of well-being)’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는가?</p>	<p>7 경험 기계 속 삶에서 결여되어 있다고 저자가 말하는 세 가지 요소(예: 성취, 지식, 관계)는 각각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p>
<p>3 저자가 구분하는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와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는 무엇이며,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p>	<p>8 ‘삶은 단지 내용물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라는 입장(중립적 용기 이론, neutral container theory)은 무엇을 주장하는가?</p>
<p>4 쾌락이 내재적으로 좋은 것이고 고통이 내재적으로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어떤 이론으로 이어지는가? 그 이론은 무엇을 주장하는가?</p>	<p>9 ‘삶 그 자체가 추가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입장(valuable container theory)은 중립적 용기 이론과 어떻게 다른가?</p>
<p>5 쾌락주의(hedonism)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 한 삶의 전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가?</p>	<p>10 이러한 구분(중립적 용기 이론 vs 가치 있는 용기 이론)은 “죽음이 언제 나쁜가”라는 문제를 판단하는 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p>

13 주차: 5 월 26 일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무거움’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1 박탈 이론에 따르면 죽음의 ‘근본적 나쁨’은 무엇이며, 저자는 왜 그것이 죽음의 유일한 나쁨은 아닐 수 있다고 말하는가?	6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unpredictability)은 우리의 삶의 계획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왜 삶의 가치를 악화시킬 수 있는가?
2 죽음의 불가피성(inevitability)은 죽음을 더 나쁘게 만드는가, 아니면 오히려 덜 나쁘게 만드는가? 저자가 제시하는 두 가지 상반된 직관은 각각 무엇인가?	7 저자가 말하는 “삶의 서사적 형태(narrative arc)”란 무엇이며, 왜 단순히 총 행복의 양만으로 삶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가?
3 스피노자의 생각(필연성을 이해하면 고통이 줄어든다)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	8 죽음의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삶이 더 좋아질까? 저자는 왜 그 또한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4 죽음의 보편성(universality) –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 – 은 개인의 죽음의 나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9 죽음의 편재성(ubiquity) –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 – 은 왜 어떤 경우에는 삶의 위협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삶의 ‘긴장감’ 또는 ‘가치’와 관련될 수 있는가?
5 죽음의 변동성(variability), 즉 사람마다 수명이 다른 사실은 개인에게 왜 추가적인 나쁨이 될 수 있는가?	10 삶과 죽음의 결합(“삶 다음에 죽음”)을 평가할 때 단순히 삶의 가치와 죽음의 나쁨을 더하는 방식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가 제시하는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s)’의 예를 설명하라.

14 주차: 6 월 2 일

-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에 다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Class 에 공지됩니다.
- 중간고사 안내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장이나 정의를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라 각 장에서 제시된 입장과 논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주요 개념의 의미, 입장들 사이의 차이, 그리고 저자가 제시한 대표적인 논증과 반론의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reading questions 를 기준으로 핵심 주장들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죽음을 마주하고 산다는 것’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 | | | | |
|---|---|----|--|
| 1 | 저자는 죽음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반응(부정, 대응, 무시)을 구분한다. 각각은 무엇이며, 특히 ‘무시(disregard)’는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가? | 6 | 저자가 제시하는 ‘적절한 공포(fear)’의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
| 2 | 우리는 왜 죽음의 사실을 단순히 “머릿속에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것”이 부적절하게 느껴지는가? 저자가 제시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 7 | “죽어 있는 상태 자체”에 대한 공포는 왜 부적절하다고 저자는 주장하는가? |
| 3 | 어떤 사실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지만 ‘이유(reason)’를 주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원인(cause)과 이유(reason)의 차이는 무엇인가? | 8 | 그렇다면 죽음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공포는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저자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가? |
| 4 | 죽음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중간 입장’은 무엇인가? | 9 | 저자는 죽음에 대해 분노(anger)는 적절한 감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5 | 저자는 감정이 단순히 실제로 느껴지는지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지’도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점을 설명하고, 왜 이 논의가 죽음 공포의 평가에 필요한가? | 10 | 결국 죽음을 마주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저자는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태도가 왜 합리적인 반응이 되는가? |

15 주차: 6 월 9 일

- 화요일 수업에서 기말고사가 진행됩니다.
- 기말고사 리뷰 영상이 6 월 16 일 I-Class 에 업로드됩니다.

- 리뷰 영상을 확인한 뒤 성적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6 월 18 일까지 메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에는 학번과 이름, 그리고 어떤 문항에 대한 문의인지(문항 번호)와 함께 본인의 답안에서 근거로 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채점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채점은 해당 문항(또는 답안)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며, 그 결과 점수가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 종강으로 추가 수업은 없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